

전남도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장성에 2022년까지 350억 투입 분관·연구동 구성 미래농업 성장 견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탄력 기대

장성에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11일 "농촌진흥청의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사업 대상지로 장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어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까지 유치되면서 전남은 국내 미래농업 성장을 견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50억원을 투입해 장성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짓는다. 분관과 연구동, 온실, 실증·증식 포장

등을 갖춘 20ha(6만평) 규모로 조성한다.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아열대 재배와 관련한 국가적 컨트롤타워다. 실증센터가 문을 열면 농촌진흥청 연구관 등 직원 50여 명이 상주하며 파파야·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 땅에 적합한 작물인지, 적절한 재배 기술은 무엇인지 등 재배 기술 개발과 신품종 개발, 묘목 또는 종자 보급, 농가 기술 지원도 펼칠 것을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열대작물 재배 관련 범국가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 국가 차원의 실증센터 구축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농촌진흥청 신규사업으로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사업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장성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아열대성 기후변화 연구에 적합한 내륙지역으로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연구단지의 시설개발이 쉽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전남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화에 대비해 민선 7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핵심 공약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기관 유치를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국립 농업연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고, 국회 토론회와 미래농정포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정책적인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했다.

또한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대표적인 농도로, 식량안보와 안전한 농산물 제공의 요충지임을 내세워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를 전남 농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전남도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기준, 전남에는 아열대과수 재배가능가는 3479호, 재배면적은 1559만㎡에 이른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농업을 육성하려고 전남도의회는 지난 3월 '전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자전거 무료로 빌리고, 정비도 받고...

광주 영산강변 터미널 8곳 운영

광주시는 "13일부터 광주전, 영산강 변 자전거길에 거점 터미널 8곳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점 터미널은 용산교·중앙대교·동천교 등 광주전원 3곳, 첨단교·어등대교·산동교·극락교·승촌보 등 영산강 변 5곳이다.

교량 아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를 무료로 정비하고 자전거길을 안내받도록 설치한 장소다. 중앙대교, 동천교, 첨단교, 어등대교, 산동교 등 5곳 터미널에서는 공영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다.

거점 터미널에는 자전거 전문가 2명이 배치되며 휴식기인 7~8월을 제외한 11월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시는 대여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전거가 있는 곳에서 결제 후 이용하는 무인공영자전거 '타랑개' 200대도 7월부터 서구 상무지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입남진 광주시도로과장은 "코로나19로 거점 터미널 운영이 다소 늦어졌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이 강변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내 모내기 순조...76% 완료

25일 전후 농작업 마무리

전남도내 모내기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도내 모내기 면적은 11만3000여ha로 계획면적 14만9000ha 대비 76%가 완료됐다. 보리와 양파 수확도 각각 72%, 85%를 마치는 등 오는 25일을 전후해 주요 농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모내기가 시작된 5월 이후 충분한 강우와 순조로운 기상여건으로 보리수확과 모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고, 일손이 부족한 양파와 마늘 수확에 도와 시·군이 농촌 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한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모내기를 위해 도내 저수지 3205개소와 양배수장 1094개소 등을 사전 점검하는 등 모내기 이후 영농기 급수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보다 6% 높은 72%로 앞으로 모내기 등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해 집중 지원하고, 36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막바지 농번기 일손부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농촌 일손돕기에 공무원 4000여 명 등 총 6700여 명이 참여, 양파·마늘 수확과 과일숙기, 매실따기 등 109ha의 농작업을 지원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모내기 등 영농이 제때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가들은 올 여름 폭염·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역 연구산업 선정 인쇄 산업 성장 18억원 지원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연구 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디자인·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인쇄 산업 혁신성장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연구 산업 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연구 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3년간 국비 15억원, 시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제품 고급화·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 산업 환경, 코로나19 사태로 부각한 비대면 비즈니스 확산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 인쇄 기업은 1086개로, 호남 최대 집적적인 동구 서남동 인쇄 거리에만 310여개가 몰려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찾은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전국 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병석(가운데) 전남대학교 총장이 영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백운광장 교통량 감소했지만 통과시간은 더뎠다

백운고가 철거 시작 교통량 조사

광주 남구 백운고가차도 철거 공사 시작 후 백운광장 주변 차량 통행량이 43.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백운고가 철거를 시작한 6월4일부터 5일까지 백운광장 주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공사 시행 전 1일 교통량이 15만

163대였지만 공사 후에는 7만7592대로 48.33% 감소했다.

출근 시간에는 시간당 교통량이 공사 전 9431대에서 공사 후 5544대로 41.22% 감소했고, 퇴근 시간대 교통량도 9056대에서 5113대로 43.71% 감소했다. 다만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교차로 통과시간은 공사 전 차량 1대당 158.1초에서 공사 후 173.8초로 15초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주일 교차로에서 남구정 방향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교통체증 최소화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백운광장을 통과하는 차량에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전달하고, 경로검색 시 우회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제작사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철거 공사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교통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백운고가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안주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은 "백운고가 철거공사 기간 중에는 가급적 백운광장 주변 도로로 우회해 주길 바란다"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와 주·야간 병행시공 등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소방본부, 9월까지 '폭염 소방활동 대책' 추진

104개 구급대·816명 대원 운영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여름은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폭염일수가 20~25일, 열대야일수도 12~17일 가량 평년보다 길 것으로 보여 운영 질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남소방본부는 전망하고 있다.

전남소방이 조사한 지난해 전남지역 운영질환자수는 198명으로, 이 중 87.4%가 실외활동 중 발생했으며, 주로 눈·발(55명, 27.8%)과 야의 작업중(45명, 22.7%)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올해 104

개 구급대, 816명의 구급대원을 119폭염구급대로 지정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급대는 열음조끼와 열음팩, 생리식염수, 주사 세트 등 9종의 대응장비를 갖추고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강화했다. 의심환자가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 지도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폭염 대응 단계에 따른 119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침을 마련, 취약계층·축산농가 급수지원을 비롯 벌집제거 출동태세 강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도민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